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정부가 회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체는 좋은 정체성(Identity)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의의이다. 정체성은 앞으로 이 조직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실용 정부와 녹색성장 정부

이 되어야 한다. 조직체가 좋은 정체성을 가지면 아래, 위, 옆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만난다.

정부의 정체성의 정점은 대통령이 있다. 그의 리더십은 바로 정체성의 발현이다.

이제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 세종도시, 자원외교, G20 회의, 녹색 성장, 시민 정책 등 수많은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려고 한다.

그 축이 무언지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좋은 정체성을 가지면 자연스레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마련이다.

MB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정부라고 부르고 이를 정부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며 자기번호를 열심히 했다.

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체성 이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의 철학은 이념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실제(practice)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존듀이의 실용주의(pragmatism) 노선을 따르는 것인데 실용정부는 이러한 정신을 높이 사는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

정체성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실용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통치의 정체성을 실용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면에서 MB정부의 정체성은 차라리 녹색성장정부로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비록 외교나 국방, 안보면에서 설명력이 떨어지나 사업과 정책의 중점을 환경과 인간을 강조하는 질적성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실용정부보다는 훨씬 나은 정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다만 녹색성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더 이상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서민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와 과학기술에 바탕한 환경주의, "나는 한 국적 녹색성장의 주축들을 놓는 사람"이라는 개인적 정체성이 "실용주의 정부의 책임자"보다 더 낫다고 본다.

이제 집권 2년이 되어 가는 마당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용주의 정부는 MB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을 명명하는 것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회, '민생 예산'부터 서둘러 처리하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현재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6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7년째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적권의 극한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철저한 예산 심의는 국회의원에겐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다.

아직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경제를 다시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이 짙다.

잇단 가정불화 참극 두고만 볼 건가

가정불화 및 생활고 등으로 일가족이 동반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한 참극은 올 들어서만 3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30대 가장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부인과 아들·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자식은 자기와는 다른 귀한 생명인데도 자신과 동일시해 동반자살이나 살해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들이 자식은 내 생명의 일부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병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시행됐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들이 전제 16개 중 6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7년째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적권의 극한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직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경제를 다시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이 짙다.

하지만, 가정불화에 대한 예방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정불화가 생기면 누구라도 쉽게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가정불화나 폭력을 더 이상 감 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예측 전문가는 직업은 사라졌어야 옳다. 하지만, 아직도 성업 중이고 연봉도 꽤 높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틀,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철웅 신체 중에서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다.

기고 전갑길 청렴 열풍이 거세다. 청백리상이 있는가 하면, 출근해서 청렴 질문에 응답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다.

건조한 겨울 '눈' 관리 뒀한 이물감, 비누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가려움, 뻑뻑함, 안구 피로 증상 등을 보인다. 주로 건조한 환경이나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눈물샘이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 날씨에는 공기 중의 습도가 부족해 피부가 건조하게 하고 눈도 마르게 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門)은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보이는 가식적인 캠페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조그만 문 하나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이 심장박동수를 결정해주는 자정 시스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無等鼓 경기전망 무용론 과거의 경제성장률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도 지난 2004년 전년도 경제성장률을 0.2%라고 평가했다가 3년 후에 1.1%로 고쳤다.

더딘 경제회복... 고달퍼지는 서민들의 삶 이웃집에는 환갑을 앞두고 병원 청소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다. 작년까지 몸이 아파서 스스로 일을 그만뒀지만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사정을 해서 계약적으로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다.

음란사이트 검색 차단 '금칙어' 더 신경써야 얼마 전 컴퓨터 파일 목록을 살펴보다 중학생인 아들이 P2P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은 다운받아 본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